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요소 연구

몽골과 한국 설화의 비교·대조를 통해

김문기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국어학 전공

kimmg5058@hanmail.net

이행선

부산국제교류재단 한국어 강사, 한국어교육학 전공

leesun411@hanmail.net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몽골과 한국 설화의 선정
- IV.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교육 요소의 선정
- V. 맺음말

I. 머리말

최근까지도 한국어 교육이 언어 교육 중심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도 초급 수준에서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를 교수·학습하게 된다. 보통 중급이나 고급 수준에 이르러서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과 관련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화’의 개념과 범위도 한국어 교육에서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의 측면에서 적절한 경계나 구분, 분류 등이 상당히 추상적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한국 문화 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는 주로 문화재 해설이나 특정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 등에 나타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 등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수·학습 자료의 경우에도, 한국의 설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졌기 때문에 학습자에게는 다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즉, 학습자들에게는 낯선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흥미 유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스키마 활성화나 활용 가능성 등에서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화 비교의 측면에서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의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특히 몽골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 초점을 두어 그들에게 익숙한 몽골 설화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때 이와 대응되는 한국 설화를 함께 제시하여,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이들 설화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요소¹⁾를 추출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문화의 교수·학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²⁾

1) 여기서의 ‘문화 교육 요소’는,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문화를 교수·학습할 때 활용 가능한 모든 요소의 개념이다. 설화의 경우, 내용, 소재, 구조, 등장인물 등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말한다. 현재 한국 문화 교육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범위 설정 등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설화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화소를 활용하여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문화 교육 요소로 삼아 한국 문화 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먼저 한국 문화 교육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몽골과 한국의 설화를 선정한다. 그리고 그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요소를 비교 분석한 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한국 문화 교육은 김정숙(1997)에서처럼 초창기에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문화 교육이 이루어졌다.³⁾ 그래서 초기의 한국어 교재에는 문화 부분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단원의 마지막에 참고적인 읽기 자료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주로 한국의 전통 문화나 속담, 관용 표현 등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었기에, 학습자들의 수준이나 문화적 배경, 교수·학습의 효과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 교육의 목표,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문화 교육과 관련된 주요 앞선 연구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논의들이 있다. 송용실(2012)에서는 목표 사회의 적응이나 유창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넘어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언어 교육을 문화 습득의 과정으

2) 이안나 역, 『몽골의 설화』(문학과 지성사, 2007)에 따르면, 옛날부터 몽골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집마다 모여 설화나 서사시의 구연을 들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옛날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외워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했다 한다. 특히,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옛날이야기에 흥미를 보인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몽골인에게 친숙한 몽골 설화와 유사한 한국 설화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양국의 문화 요소를 교수·학습한다면 한국 문화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에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한글학회, 1997), 317-325쪽.

로 보고 일방적인 목표어 사회로의 동화나 적응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 등에 따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소통’과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김은지(2014)에서는 문화 교육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도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때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습득이 필요하므로, 문화 교육을 위해서 전문 교사 양성 교육의 활성화, 인접 학문과의 연계,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의 이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⁴⁾

둘째,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 선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화 범주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수준별로 교육할 내용을 제시했다. 조항록(2004)에서는 문화 교육의 범주를 언어문화, 일상생활 문화, 성취 문화로 나누었고, 권오경(2009)에서는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로, 강현화(2010)에서는 문화를 정보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로 구분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2011: 12, 91-103)에서는 문화 교육 항목을 각 등급별로 추출하여 대분류(7개), 중분류(23개), 소분류(55개) 항목으로 세분화했고,⁵⁾ 문화 항목의 목록 추출과 선정, 목록의 등급화, 세부 기술 내용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국립국어원(2011: 93-95)에 제시된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

4) 송용실, 「한국어 문화 교육의 실태와 교육 방향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김은지, 「한국어교사 대상 문화 교육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5)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국립국어원, 2011), 90-91 쪽에서는 한국어 표준 모형의 문화 영역 도출 과정을 모두 7단계로 제시했다. 그리고 문화 요소를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항목이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닌 문화 교육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때 문화 항목의 설계 원리와 방향으로서, 문화 영역의 하위 요소로 설계된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을 정보 문화와 행동 문화, 성취 문화로 구분하여 등급화했다. 이는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목록화한 문화 항목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실행과 자국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문화 관점으로서의 실현을 아우르는 데에 그 목표를 둔 것이다.

6) 조항록,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99-219쪽; 권오경,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2(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2009), 49-72쪽; 강현화,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국어국문학회, 2010), 39-78쪽;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국립국어원, 2011), 12, 90-103쪽. 국립국어원, 앞의 보고서(2011), 93-95쪽에서는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화 범주를 선정하고, 다시 그 각각의 하위 문화 범주를 나누었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표1-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계절 활동, 경제 활동
	여가 생활	여행, 친목 모임/동호회, 스포츠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 생활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인사, 한글과 한국어, 몸짓 언어
한국 사회	세시 풍속	명절, 주요 절기
	관혼상제	관례/혼례, 장례/제례
	정치	남북 관계, 국제 관계, 정치 제도
	경제	경제 제도, 경제 정책
	교육	교육열, 교육 제도, 교육 문제
	사회	복지 정책, 사회 제도, 공휴일, 사회 문제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대표 지역과 축제
	교통	교통수단, 교통 체계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문학		문학 작품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가족주의, 건강,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
	사고방식	빨리빨리 행동, 민간신앙, 종교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
	상징물	한국의 상징
외국인의 한국 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하지만 국립국어원(2016: 149-151)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10, 2011)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⁷⁾ ① 분류상

‘문화 범주’의 구분과 제시가 아니라,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의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구체적인 문화 교육 요소를 선정하고 나아가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간단히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문학과 예술〉-〈문학〉-〈문학 작품〉의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학 작품의 화소 분석 결과로 추출된 문화 교육 요소가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 사회〉, 〈한국인의 생활〉 등과 모두 관련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문화 교육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 교육에서는 정해진 문화 범주의 범위에 제한된 항목뿐만 아니라 범주 교차적으로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7)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국립국어원, 2016), 15-168쪽; 국립국어원, 앞의 책(2010); 국립국어원, 앞의 책(2011).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과 2011년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내용을 점검·보완하여 2016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를 발간했다. 본고에서는 그 내용 중 문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국한하여 언급한다.

대범주인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② 정보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가 다소 갑작스럽게 등장한다. ③ 등급별 교육 내용의 수나 양이 고르지 않다. ④ 난이도에 따라 ‘문화’를 1등급-7등급으로의 등급화가 가능한지,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 교육의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① 문화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등의 영역 기술 방식과 통일성을 갖추어 등급별로 교육 가능한 문화 내용을 선정한다. ② 언어 숙달도 요구 수준은 ‘초, 중, 고’로 표시한다.⁸⁾ ③ 하위분류된 문화 교육 내용도 더 세분하여 제시한다.⁹⁾

셋째,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학이나 설화를 활용하여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도모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문학 텍스트를 통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 연구(김동환, 2008; 정연숙, 2012), 글쓰기에 응용한 연구(김혜진, 2011), 읽기 교육 연구(이가원, 2014),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한국 문화 교육 방안에서 한국 설화를 활용한 연구로는 이성희(1999)를 비롯하여 김민주(2007), 서희정(2008), 안미영(2008), 안희은(2009), 임효례(2012), 정희정(2014), 오윤선(2016), 하은하(2017) 등이 있다¹⁰⁾

8) 이때 표시된 등급의 의미는, 그 등급에서부터 학습이 가능함을 뜻한다.

9) ‘명절’의 경우, 명절의 어떤 측면을 교육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문화 지식 부분에서는 ‘명절의 종류, 이름, 명절 음식’ 등을, 문화 관점 부분에서는 ‘세계의 명절 비교’, ‘명절의 풍습 비교’ 등과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숙달도에 따라 이를 ‘명절의 종류, 이름, 명절 음식’ 등의 내용은 초급에, ‘명절의 풍습(명절에 하는 일), 세계의 명절 비교’ 등은 중급에, ‘명절의 유래, 명절의 관습, 시대에 따른 명절 풍속의 변화’ 등은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명절’의 어떠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0) 김동환, 『공유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31(국어교육학회, 2008); 정연숙, 『문학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상상』, 『국어교과교육연구』 21(국어교과교육학회, 2012); 김혜진, 『설화를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이가원,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5(한국문예비평학회, 2014);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김민주, 『설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방안 연구』(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서희정, 『도깨비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6-3(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정신문화연구』 31-4(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안희은, 『설화를 활용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관련 논의들에서는, 작품 목록 전반에 대한 검토, 설화의 가치 분석을 통한 문화 요소 추출과 그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설화에 국한되어 있거나,¹¹⁾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만 교육 현장에 활용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몽골 설화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윤승준 외 (2002)는 한국 설화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몽골 설화를 연구한 것이다. 장장식(2007)은 몽골과 한국 설화의 비교와 함께 몽골 설화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양국의 비교 가능한 설화를 소개했다. D.OTGONTSETSEG (2009)는 양국의 설화에 등장하는 말(馬)의 상징성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외의 몽골 설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작품 몇 편에만 국한되었다.¹²⁾

본고에서는 몽골인에게 친숙한 설화를 선정하고, 그것과 유사한 한국 설화를 선정하여 문화 교육의 요소를 추출할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인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과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 본다. 또한 이와 관련되는 한국 설화를 처음 접하게 되어도 내용이나 표현, 소재 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배경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한국어 학습(어휘, 문법, 표현 등)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의 화소(話素) 분석¹³⁾의 결과로

한 한국어 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9); 임효례, 「설화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배달말 교육』 32(배달말교육학회, 2012); 정희정,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오윤선, 「한국문화교육 제재로서의 설화의 선정과 교재화 방향」, 『고전문학과 교육』 31(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하은하,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 『인문논총』 31(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11) 대부분의 연구가 <단군신화>, <홍부와 놀부>, <선녀와 나무꾼>, <도깨비 설화> 등 한 작품에 국한하여 문화 요소를 추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선녀와 나무꾼>은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한 설화이다.

12) 윤승준·황인덕, 「한·몽설화의 비교: 爭年說話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2(비교민속학회, 2002); 장장식, 「한국과 몽골 설화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3(비교민속학회, 2007); D.OTGONTSETSEG, 「蒙·韓 구비문학에서 말[馬]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Journal of Korean Culture』 13(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9).

13)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용, 『구비문학개설』(일조각, 1991), 52-68쪽에서는 '유형(類型, type)'과 '화소(話素, motif)'를 구별하며, 특히 '화소'는 이야기를 이루는 독립된 요소들이며, 한 '유형'에는 하나 이상의 '화소'가 들어 있다 했다. 그리고 화소는 특이하고 인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사리 파괴되지 않고 용이하게 기억되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하여 문화 비교 중심의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고는 설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내용의 선정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룸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독창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III.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몽골과 한국 설화의 선정

여기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어떤 설화를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먼저 몽골인에게 잘 알려진 설화를 예로 삼아 소개하고, 그 줄거리와 구조, 주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한국 설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간단히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해 몽골 설화와 대응되는 한국 설화의 목록을 제시한다.¹⁴⁾

며 독립적인 생명을 지니므로 같은 화소가 서로 다른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다 했다. 따라서 '사람'은 화소가 될 수 없지만 '혹부리 영감'은 특이하고 인상적이라서 화소가 된다. '결혼'은 화소가 될 수 없지만, '사람과 짐승의 결혼'은 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화소는 어떤 '물건', '행위자', '행위',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일 수도 있다. 한편, 이문기 옮김, 『민담, 그 이론과 해석』(유로서적, 2009), 348-354쪽에서 프로프(Propp)는 설화의 다양한 특징들을 최소 단위가 모티브인 아르네(Aarne)의 유형별 분류, 즉 줄거리의 진행 과정 속에서의 사건에서 찾지 않고 이야기의 구조에서 찾았다 하였다. 그리고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새문사, 1988), 26-46쪽에서도 '화소'와 화소를 활용한 줄거리 구조 등으로 설화를 분석했다.

- 14) 물론 이 글에서 언급한 몽골과 한국의 설화들은, 다른 나라의 설화와 유사성을 띠는 것도 분명히 있다. 즉, 그 연원을 따진다면, 다른 나라의 설화에서 유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선정한 설화들은 몽골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설화가 아니라, 몽골과 한국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설화들이다. 그리고 설화의 세계 보편적 분포 양상이나 그 유사성 등은, 결국 '내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설화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그에 나타나는 화소를 문화 교육 요소로 삼아서 살펴볼려 한다. 따라서 이들 설화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므로 논외로 한다. 이는 기존의 설화 비교 연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띠는 설화 가운데 어느 나라의 설화가 최초의 설화이며 그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설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문자로 정착되기 이전에 이미 구전되고 있었던 설화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 몽골의 설화

몽골 설화에는 자연 환경이나 생활환경, 역사 등 옛 몽골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신화를 비롯하여 가축을 포함한 동물의 생태와 특징 등에 대한 근원 설화, 서로 다른 동물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인간의 삶에 투영되는 우화 등이 많이 보인다.¹⁵⁾ 이처럼 몽골의 설화에는 몽골의 자연, 생활, 역사, 인식 등이 반영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알려진 몽골 설화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낯선 몽골 설화의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와 대응되는 한국 설화를 선정한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해, 몽골 설화 2편을 예로 삼아 그 내용을 간단히 제시한다.

• 호랑이를 탄 도둑¹⁶⁾

옛날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다. 그 두 노인에게는 누런 점박이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호랑이가 와서 누런 점박이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다. 그 다음날 밤에 비가 오고, 할머니는 호랑이가 다시 올지 몰라 두려워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어제 한 마리 있던 암소를 먹은 호랑이가 오늘 밤에 또 와서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호랑이는 괜찮은데 물방울이 문제야.”

그러자 헛간 문에 서 있던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물방울이라는 것이 나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암소를 훔쳐가려고 헛간에 서 있던 도둑놈이 그 호랑이가 암소인 줄 착각하고 그 등 위에 탔다. 그러자 호랑이는 ‘물방울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으려는 이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며 도둑놈이 내릴 사이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다. ‘이렇게 빠른 암소가 있던 말인가’하고 생각하며 호랑이를 타고 정신없이 가던 도둑이 새벽이 밝아오자, 자신이 암소가 아니라 호랑이를 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겁이 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자 호랑이는 더욱더 빠르게 달려갔다.

15)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은 가축이나 동물의 생태, 성질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 특성을 살려 동물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이야기로 풀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동물을 통해 인간 삶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어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우화의 성격이 강하다.

16) 이안나 역, 앞의 책(2007), 545-546쪽 참조.

이 설화는 한국의 〈호랑이와 꽃감〉과 아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설화에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호랑이’와 ‘꽃감’이 등장하지만, 몽골 설화에서는 ‘물방울’이 등장한다는 차이점 또한 있다.¹⁷⁾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몽골의 문화 요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의 주거 형태이다. ‘게르(ger)’는 천장이 뚫려 있으며, 동물을 가두는 우리에는 울타리만 있어서 실제로 한밤중에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동물이 많이 있다고 한다. 둘째, 몽골의 기후이다. 몽골은 계절에 따라 심한 강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가 오면 펠트(felt)로 덮여 있는 천장에서 물이 새므로, 이 설화에서는 물방울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 도둑의 등장이다. 도둑은 현대에도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는데, 몽골 설화에서도 도둑이 등장한다는 것이다.¹⁸⁾

• 호리대 메르겐¹⁹⁾

아주 오랜 옛날에 바보오 주변에 호리 투메드가 살고 있었다. 호리 투메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해 아내와 자식이 없는 젊은이었다. 그가 바이칼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홉 마리의 백조가 동북쪽에서 날아와 바이칼 호수에 앉았다. 백조들이 백조옷을 벗자 여인들로 변해 호수로 들어갔다. 그때 그는 백조옷 한 벌을 훔쳐 숨어 있었다.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온 여덟 명의 여인은 백조옷을 입고 동북쪽 하늘로 날아갔으나 한 명은 지상에 남아 호리 투메드의 아내가 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열한 명의 아들을 낳은 후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에 돌아가겠어요. 당신은 많은 자식을 갖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당신을 도울 테니 이생에서 당신은 지칠 일이 조금도 없을 거예요.”

그러지만 호리 투메드는 백조옷을 내어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다시 아내가 간청을 했다.

“제 백조옷을 내어 주세요. 한번만 입어 볼게요. 제가 문으로 나가도 잡힐 거예요. 저는 당신을 이길 수 없어요. 한 번 입어만 볼 테니 옷을 내어 주세요.”

17) 이처럼 설화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대응되는 한국 설화를 선정할 것이다.

18) 이는 〈호랑이를 탄 도둑〉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물론 설화에 따라 그에 드러나는 문화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해당 문화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실제 드러나는 부정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 교육의 목표는 결국 학습자에게 있는 그대로의 문화 현상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학습자에게 맡겨서 상호 문화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 이안나 역, 앞의 책(2007), 89-91쪽 참조.

‘그저 한번 입어 보는데 어찌려고’라 생각하며 호리 투메드는 아내에게 백조옷을 꺼내 주었다. 아내는 백조옷을 입자마자 위로 날아올라 환기구를 통해 나가려고 하자, 호리 투메드는 숯검정이 묻은 손으로 새의 두 다리를 잡아당겼다.

“아, 대책 없이 놓쳐 버리게 생겼구나. 당신이 가셨다면 가도 좋소! 그렇지만 열한 명의 자식에게 이름이나 붙여 주고 가구려.”

그녀는 열한 명의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 호리 투메드는 이들을 열한 씨족의 아버지로 삼게 하고 그녀를 놓아 주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언제나라도 낙담하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라고 축원을 하고 동북쪽 하늘로 날아갔다.

이 설화는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과 관련성이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총각이 백조/선녀의 옷을 훔쳐 같이 살다가 아내가 백조/선녀의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백조/선녀의 옷을 훔치는 장소와 자녀의 수, 그리고 하늘로 도망칠 때의 상황 등은 두 설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볼 때, 두 나라 사이의 거주지, 주거 환경, 결혼 풍습, 자녀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방위에 대한 인식 등의 문화 요소에 대한 내용이나 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자국의 문화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므로, 한국 설화의 문화 요소와 충분히 비교·대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몽골의 자녀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자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말하기, 쓰기 등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문화 학습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자명해진다.

앞에서 제시한 두 편의 몽골 설화를 통해, 대응되는 한국 설화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떤 문화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2.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몽골 설화의 선정

여기에서는 설화의 내용(줄거리)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몽골과 한국 설화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때 몽골 설화의 기본 자료로는 『몽골의 설화』를 활용할 것이다.²⁰⁾ 지금까지의 몽골 설화집이

20) 이안나 역, 앞의 책(2007). 지금까지 몽골 설화는 1984년 주채혁이 번역한 『몽고민담』으로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고, 그 이후에 출간된 몽골 설화집이 2권 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몽골 설화만 수록할 뿐, 몽골 설화의 특징을 밝히거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설화와 비교하지는 않았다.

민담 위주로만 다룬 데 비해, 이 책에서는 신화, 전설 등을 두루 포함하여 작품의 수가 현저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설화의 개념과 종류를 자세히 설명하고 몽골 학자들의 설화 연구 현황을 소개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몽골 설화의 특징과 유형²¹⁾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기본 자료로 삼았다.²²⁾

본고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몽골 설화를 선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³⁾ 첫째, 설화의 보편성이다. 몽골 설화 160여 편 중에서 몽골 학교의 교과서에 실리거나 몽골인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보편적이고 친숙한 설화를 선정하고, 그와 대응되는 한국 설화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서 몽골의 정규 학교 과정의 교과서에는 어떤 설화가 실려 있는지, 그 설화를 학습하는 몽골인들의 태도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인 유학생 11명에게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다. 즉, 먼저 『몽골의 설화』를 읽은 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을 고른 후, 그 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시 표시하도록 하여 보편적 설화 선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좁혔다. 그 결과 선정한 몽골 설화는 신화(13편), 동물담(21편), 신이담(16편), 생활담 중 일반담(15편)과 풍자담(45편)²⁴⁾이다.

둘째, 설화의 대응성이다. 즉, 줄거리나 구조, 주제 등의 측면에서 몽골 설화와 유사하여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 설화 중에서 몽골인들에게 친숙하며 한국의 설화와 유사한 작품으로는 〈호랑이를 탄 도둑〉, 〈호리대 메르갱〉, 〈거북이와 원숭이〉, 〈팔 없는 여인〉, 〈고양이 목에 방울〉, 〈노인과 토끼〉, 〈노인과 호랑이〉, 〈여우, 고슴도치,

21) 장장식,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민속원, 2005)에서, 몽골 설화는 한국의 경우처럼 신화, 전설, 민담으로 정확히 분류되지 않지만, 『몽골구비문화』에서는 ‘신화(domog ulger), 민담(ulger), 전설(domog)’의 분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몽골의 설화』에는 신화 20편, 동물담 30편, 신이담 23편, 생활담 일반담 20편, 풍자담 68편 등 총 161편이 실려 있다. 신화의 경우, 동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12편), 자연의 현상에 대한 기원에 관한 이야기(4편), 인간에 관한 이야기(4편)가 포함된다. 그리고 신화에는 대부분 동물이 등장하는데, 이는 유목 문화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몽골인 특유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3) 백봉자,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연세대 한국어학당, 2006), 7-12쪽에서 문화 교육 자료 개발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와 부분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이다.

24) 몽골의 학교 교육에서 쓰이는 설화뿐만 아니라 몽골인들에게 친숙한 몽골 설화 중에서 한국 설화와 유사한 설화가 상당히 많았다.

늑대), 〈여우와 사자〉, 〈여우와 늑대〉, 〈어리석은 늑대〉, 〈타르바간은 왜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나〉, 〈우애 있는 네 마리 동물〉, 〈박쥐 이야기〉, 〈우정 이야기〉 등 15편이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의 〈팔 없는 여인〉은 한국의 〈손 없는 색시〉와 등장인물부터 줄거리, 구조, 주제까지 대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몽골의 〈거북이와 원숭이〉는 한국의 〈구토설화〉와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흐름 등이 아주 유사했다. 다만, 용왕 대신 거북이의 아내가 아픈 척하는 것으로 설정된 점과 토끼 대신 원숭이가 등장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였다. 몽골의 〈호랑이를 탄 도둑〉은 한국의 〈호랑이와 꽃감〉과 유사하며, 몽골의 〈호리대 메르갱〉은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이 유사하다. 또한 몽골의 〈타르바간은 왜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나〉에는 한국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유사한 내용이 액자 구성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었다.

이 이외에도 〈노인과 토끼〉, 〈노인과 호랑이〉, 〈여우와 사자〉, 〈여우와 늑대〉, 〈어리석은 늑대〉 등은 한국의 우화가 조금씩 섞여 있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이때 설화에 등장하는 각 동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양국에서의 동물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문화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방식으로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를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의 선정

분류 기준	몽골 설화	한국 설화	비고	
			공통점	차이점
출 거 리	호랑이를 탄 도둑	호랑이와 꽃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랑이 등장 · 빗방울(꽃감)에 대한 두려움 · 도둑의 등장 · 호랑이 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 노부부(몽골), 아기와 엄마 · 호랑이가 두려워하는 대상
	호리대 메르갱	선녀와 나무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조/선녀의 하강 · 남녀의 결혼과정 · 자식을 낳은 후 백조/선녀 옷 요구 · 백조의 승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주인공 직업 · 자녀의 수 · 승천 시 자녀 동반의 여부: 동반(한국)

	거북이와 원숭이	구토설화 (토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숭이/토끼의 장기가 필요한 상황 · 원숭이/토끼를 속여 물속으로 데려옴 · 원숭이의 기지로 위기 모면 	· 원숭이/토끼의 장기 필요 이유: 치(몽골), 병환
	팔 없는 여인	손 없는 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모의 계략으로 팔/손이 잘린 채 추방 · 착한 남편을 만남 · 계모의 계략으로 위기 재봉착 · 팔/손의 재생과 재회 · 계모의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방의 원인: 쥐의 이빨을 가진 공주(몽골), 낙태를 한 딸 · 팔/손의 재생 과정 · 부부의 재회: 보시(몽골)와 옛장수
	고양이 목에 방울	묘항현령 (猫項懸鈴)	·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의견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의 존재: 쥐들의 스승(몽골), 횡포를 부리는 존재 · 문제 해결의 여부: 방울을 달. (몽골)
구조	우애 있는 네 마리 동물	동물들의 나이 자랑 1 (두꺼비, 토끼, 사슴)	· 점층 구조(뒤로 갈수록 나이가 더 많게 됨)	· 서열을 정하는 이유: 우정(몽골), 어른 대접받기 위해(한국)
구조	여우, 늑대, 고슴도치	동물들의 나이 자랑 2 (호랑이, 토끼, 두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 점층 구조 	· 등장하는 동물의 차이(줄거리, 구조, 주제 면에서 차이점 없음)
주제	노인과 호랑이	악은 토끼와 어리석은 호랑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속에 발하는 지혜 · 호랑이의 상징성(어리석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기지로 위기 탈출(몽골) · 토끼의 도움을 받아 위기 탈출(한국)
	거북이와 원숭이	구토설화 (토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고 속이는 세태 풍자 · 위기 속에 발하는 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숭이가 나무에서 지내는 이유에 대한 기원을 밝힘(몽골) ·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경계(한국)
	팔 없는 여인	손 없는 색시	· 권선징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정(母情)의 정도 · 佛法에 의거한 가족 상봉(몽골)
기타	타르바간은 왜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 세상에 비밀은 없듯이 말조심하라는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르바간의 기원설(몽골) · 액자 구조로 삽입된 이야기(한국)
	노인과 토끼	한국의 여러 우화와 복합적 양상을 띠	· 각 동물의 상징성(공통점)	· 각 동물의 상징성(차이점)
	어리석은 늑대			
	여우와 늑대			
여우와 사자				

IV.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교육 요소의 선정

여기에서는 몽골 설화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몽골 설화를 대상으로 한 화소 분석을 통해, 한국 설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밝힐 것이다.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당연히 문화 교육의 요소로서 유의미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 역시 문화 교육의 요소로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두 설화의 차이점을 통해 몽골과 한국의 문화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이전 단계, 즉 스키마 활성화의 측면에서 이러한 공통된 문화 요소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1. 몽골 설화의 내용과 한국 문화 교육 요소

여기에서는 표2의 몽골 설화 중 3편을 대상으로, 화소 분석을 통한 설화의 줄거리를 대응되는 한국 설화와 비교·대조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화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히 논의한다. 이는 뒤에서 다룰 문화 교육 요소의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이 될 것이다.

1) 〈거북이와 원숭이〉²⁵⁾

이 설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거북이 남편이 산에서 원숭이를 만나 사귀게 됨.
- ② 이 사실을 안 거북이 아내는 아픈 척을 하면서 암컷 원숭이의 심장을 먹으면 낫는다고 거짓말을 함.
- ③ 거북이 남편이 원숭이를 집으로 초대함.
- ④ 집에 도착할 때 원숭이에게 사실을 말함.
- ⑤ 원숭이는 심장이 나무꼭대기에 있다고 피를 냄.
- ⑥ 원숭이는 나무꼭대기에 올라 똥을 싸서 던져 주고 다시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음.

25) 이안나 역, 앞의 책(2007)에서는 몽골 설화에서 몽골에 없는 사자, 코끼리, 원숭이 등의 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인도 설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특히 〈거북이와 원숭이〉는 인도의 〈관차탄트라 설화〉가 몽골에서 고대부터 구전되어 오면서 몽골의 생활을 반영한 특수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밝혔다.

내용상 이 설화는 한국의 <구토설화(龜兔說話)>²⁶⁾와 관련이 있다. 먼저 이 두 설화에서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속고 속이는 우리 사회의 세대 풍자, 둘째는 원숭이와 토끼가 보여 준 위기 상황의 극복 지혜, 셋째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동물의 장기(간, 심장)를 먹던 옛 풍습 등이다. 먼저 첫째와 둘째에 관련되는 것으로, <구토설화>는 조선 후기에 <토끼전>이라는 관소리계 소설로 정착되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풍자한 성격이 강했다. 즉, 용왕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통치자로, 거북이는 충성심이 강하나 수모를 당하는 어리석은 신하로, 토끼는 욕심을 부리다가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조선 시대라는 사회적 상황과 위기 극복의 지혜, 분수에 맞는 삶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에 해당하는 풍습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몽골에서는 순록의 뿔(녹용), 한국에서는 웅담 복용 등이 그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옛날 양국의 민간요법에 대한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이 현대의 과학적 치료 방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두 설화의 차이점도 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은 사건의 발단에 있다. 즉, <거북이와 원숭이>에서 사건의 발단이 바람난 남편과 치정(癡情) 관계인 암컷 원숭이를 해치기 위해서라면, <구토설화>에서는 용왕의 딸이 걸린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거북의 충직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질문함으로써 사회적 통념이나 지배 이념 등을 생각해 보는 문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팔 없는 여인>

이 설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바다의 북쪽 땅의 공주가 계모인 왕비의 모함(들취의 이를 공주의 이로 속임)으로 추방당함.
- ② 왕이 바다의 남쪽에서 공주의 두 팔을 잘라 버림.
- ③ 바다 남쪽의 왕자가 공주를 발견하고 아내로 삼음.
- ④ 왕자가 벼슬길에 올라 떠날 때, 공주는 아이를 가짐.

26) 이는 『삼국사기』 권 41의 ‘열전 김유신 상(上)’에 수록되어 있다.

- ⑤ 3년 뒤, 왕자가 보낸 편지를 심부름꾼이 잠시 머문 중국인 집의 아내(계모 왕비)가 아내를 멀리 귀양 보내라고 고쳐 씀.
- ⑥ 편지를 받은 왕이 며느리와 아이를 절에 숨겨 두자, 공주가 아이를 업고 도망침.
- ⑦ 왕자가 돌아와 사실을 알고 계모 왕비를 죽이고 보시(布施)를 한다는 포고령을 내림.
- ⑧ 바닷가에서 물에 닿은 팔이 다시 자란 공주는 아이를 업고 보시하는 곳을 찾아감.
- ⑨ 가족이 만나게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됨.

이 이야기는 한국의 <손 없는 색시>와 그 구조, 내용면에서 거의 일치한다. 참고로, <손 없는 색시>의 화소에 바탕을 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옛날에 계모가 쥐를 잡아 그 껍질을 의붓딸 이불 속에 넣어 낙태한 것으로 모함함.
- ② 화가 난 아버지는 딸의 두 손을 자르고 내쫓음.
- ③ 부잣집 배를 따라다가 그 집 도령을 만나 부부가 됨.
- ④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나고 색시는 아들을 낳음.
- ⑤ 심부름꾼의 편지를 도중에 만난 계모가 고침.
- ⑥ 아들의 거짓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가 모자를 내쫓음.
- ⑦ 물을 마시려다 아이를 떨어뜨리고 건지려고 하자 손이 자람. 색시는 허드렛일과 길쌈을 하며 생활함.
- ⑧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진실을 알고 모자를 찾기 위해 옛장수가 되어 떠돌다 아내를 만남.
- ⑨ 돌아온 아내는 부친을 만나고, 계모는 젓값을 받음.

이 두 이야기를 보면 ①~⑥까지의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부친의 재혼, 계모의 모함으로 인해 축출, 착한 심성으로 좋은 남자와 결혼, 계모의 악행으로 다시 위기를 겪음, 악행을 저지른 계모의 죽음이나 처벌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재혼을 통한 가족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취의 이를 가진 혐오스런 딸의 모습과 낙태)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첫째, ‘팔/손’의 재생 계기이다. <팔 없는 여인>에서는 바닷물에 닿아 팔이 저절로 자라는데,²⁷⁾

27) 몽골에는 바다가 없는데, 몽골인들은 ‘흙스걸(hu) 호수를 ‘엄마의 바다’로 부른다. 팔이

〈손 없는 색시〉에서는 떨어지는 아이를 받아내려고 하는 모성으로 손이 재생하게 된다. 둘째, 아내와 자식을 찾는 과정이다. 〈팔 없는 여인〉에서는 보시를 행함으로써²⁸⁾ 모자(母子)를 찾지만, 〈손 없는 색시〉에서는 엿장수가 되어 부인과 자식을 찾는다. 셋째, 주인공의 삶에 대한 태도이다. 〈팔 없는 여인〉에서 팔이 다시 생긴 여인은 생계유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손 없는 색시〉에서 손이 다시 생긴 색시는 힘든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강인한 여성상과 어머니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양국의 모성, 자식에 대한 가치관, 여성상 등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나 현대적인 인식 등에 대한 토론도 가능할 것이다.

3) 〈우애 있는 네 마리 동물〉

이 설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비둘기, 토끼, 원숭이, 코끼리가 누가 형인지 정해 존중하고 따르기로 함.
- ② 코끼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어릴 때 나무를 비비며 놀았다고 함.
- ③ 원숭이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나무에는 나뭇가지가 없었다고 함.
- ④ 토끼는 자기가 어렸을 때 나무에 막 뿌리가 나오고 있었다고 함.
- ⑤ 비둘기는 그 나무의 씨를 자기가 물고 와서 떨어뜨렸다고 함.
- ⑥ 이에 형과 동생의 순서가 정해지고 네 마리 동물은 서로 존중하고 보살피는 예를 다하며 우애 있게 살았다고 함.

이것은 몽골에서는 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설화로, 한국 설화 〈동물의 나이 자랑 1〉²⁹⁾과 구조가 비슷하다. 〈동물의 나이 자랑 1〉의 화소 분석에 근거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슴, 토끼, 두꺼비³⁰⁾가 모여 어른으로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바닷물에 닿아 재생되는 것은 ‘어머니’와 관련된 물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또한 물이 귀한 몽골에서 물의 가치를 알려 주기도 한다.

28) 몽골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9) 이 설화는 『고려대장경』 권 34의 「십송률(十誦律)」에도 실려 있는데, 이를 근거로 불전(佛典)에서 영향을 받은 설화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세 동물이 각각 ‘코끼리, 원숭이, 사막새’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다른 동물로 바뀌었다.

30) 세 동물 중 다른 동물의 이름이나 자랑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채 두꺼비의 이야기만 드러내는 설화가 많다. 그리고 사슴, 토끼, 두꺼비 중에서 두꺼비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다양하게 변이하면서 구전되어 오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이 두꺼비라는 것은 동일했다.

나이가 많다고 자랑함.

- ② 사슴은 천지가 개벽할 때 자신이 그 일을 도왔다 함.
- ③ 토끼는 그 때 사용한 사다리의 나무를 자기가 심었다고 함.
- ④ 두꺼비가 울면서 자기가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심은 나무로 하늘에 별을 박을 망치를 만들고, 둘째아들이 심은 나무로는 은하수를 팔 때의 삽자루를 만들고, 셋째아들이 심은 나무로는 해와 달을 박을 망치 자루를 만들어 일을 하다 과로하여 죽었다고 함.
- ⑤ 결국 두꺼비가 제일 어른으로 대접받게 된다.

〈우에 있는 네 마리 동물〉과 〈동물의 나이 자랑 1〉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연장자인지를 정하는 이유는 다르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은 같다. 이 두 설화의 공통점은 몽골과 한국의 인간관계에서의 서열을 정할 때 ‘나이’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것이 ‘우애’로 이어지지만, 한국에서는 ‘경쟁 심리’로 이어지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앞으로,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이름을 물을 때 나이를 함께 묻는 경향이 강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몽골 설화 3편을 예로 삼아서 화소 분석을 통한 줄거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한국 설화를 대응시켜 봄으로써 이들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몽골과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요소 등을 추출하여 이들을 문화 교육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2.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교육 요소 선정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몽골 설화의 화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문화 교육 요소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교육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이때 문화 교육 요소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를 교육할 때 활용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 교육 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몽골과 한국 설화를 대상으로 삼았기에,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두 나라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항을 찾기 위해 III에서의

몽골 설화와 대응되는 한국 설화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또한 IV의 1에서는 이를 기초 자료로 삼아 각 설화에 나타나는 화소 분석에 기반한 줄거리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 추출된 몽골과 한국 설화의 여러 가지 관련성도 문화 교육 요소를 추출하는 기준이 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몽골과 한국 설화에 내포된 문화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문화 교육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설화의 내용에 근거하여 선정한 문화 교육 요소

구분	몽골 설화	한국 설화	공통점	차이점	문화 교육 요소
1	호랑이를 탄 도둑	호랑이와 곱감	호랑이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 도둑	가옥 구조, 날씨, 저장 음식	가옥 구조, 4계절(날씨), 저장 음식, 도둑(사회 문제)
2	호리대 메르갱	선녀와 나무꾼	결혼 과정	주거 환경, 자식에 대한 인식 차이	주거 환경, 결혼풍습, 자식에 대한 인식
3	거북이와 원숭이	구토설화(토끼전)	약재로 쓰이는 동물의 장기(간, 심장), 지혜로 위기 극복	인간관계 사회의 세태 반영(한국)	민간요법, 사회의 특징, 인간관계
4	팔 없는 여인	손 없는 색시	계모의 학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권선징악의 사회	불교 중요(몽골), 여성의 생활력 차이, 모성애의 정도	가족관, 여성관, 자식에 대한 모정, 종교, 생활 풍습
5	고양이 목에 방울	묘형현령 (猫項懸鈴)	위기 상황 대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민족성
6	우애 있는 네 마리 동물	동물들의 나이 자랑 1(두꺼비, 토끼, 사슴)	서열(나이)의중요성	서열 정리 후의 태도 변화(몽골)	서열 관계, 장유유서, 우정
7	여우, 늑대, 고슴도치	동물들의 나이 자랑 2(호랑이, 토끼, 두꺼비)	서열(나이)의 중요성, 약자의 승리	경쟁 원인(한국: 떡), 서열 결정의 소재(몽골: 술)	현대 사회의 특징(경쟁), 음식
8	노인과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	지혜로 위기극복, 호랑이의 어리석음	토끼의 도움으로 위기 극복(한국)	동물의 상징성(호랑이)
9	타르바간은 왜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당시 계급 사회의 특징 말조심하라는 주제	비밀 누설에 대한 응징(몽골)	가치관, 충(忠) 사상

이와 같이 추출한 문화 교육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앞에서 제시한 화소 분석 결과 중 하나를 예로 들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이러한 문화 교육 요소의 활용이, 결국은 언어 능력의 향상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능 교육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활동으로 활용 가능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문화 교육 요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제시한다.

첫째, 문화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보통 설화라고 하면 그 문화권의 전통적인 문화 요소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는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다. 즉, 전통적인 것,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연결, 현대적인 것 등 모두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것이다. 이처럼 문화 교육에서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둘째, 문화 교육 대상 내용으로 설화의 주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이는 각 설화가 나타내는 주제와 관련한 문화 요소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설화의 내용, 구조, 등장인물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화소와 관련하여 양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 교육 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한다. 물론 몽골과 한국 설화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요소 중 차이가 나는 것을 활용하면, 선명하게 학습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통적인 것 또한 학습자들의 스키마 활성화의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넷째,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부정적인 것은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 역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문화 교육 요소와 부정적인 문화 교육 요소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북이와 원숭이〉와 〈구토설화〉에 나타나는 문화 교육 요소를 예로 들어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¹⁾

31) 여기에서는 이들 설화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요소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학습자의 활동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김형복·이행선, 「몽골과 한국 설화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재 구성 방안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18(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197-215쪽에서 몽골

표4- 문화 교육 요소의 활용 방법

구분	활용 방법
몽골과 한국 사회의 전통적/현대적 상황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등
몽골과 한국의 인간관계	각 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보편적/개별적 상황이나 경험 등
몽골과 한국의 질병과 치료 방법	과거(민간요법) / 현재(민간요법, 현대 의학, 과학적 근거 등)

표5- 문화 교육 요소와 관련된 활동 예시

구분	활동
읽기 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시사 문제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시 • 한국인의 질병과 치료법에 대한 읽기 자료 제시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몽골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 감기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사용하는 민간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민간요법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몽골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했던 사회 문제를 조사하여 써 보세요.(조건 제시: 사건의 명칭, 사건 발생의 원인, 사건의 내용, 사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 등을 포함할 것) • 몽골의 민간요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써 보세요.(조건 제시: 병의 이름, 증상, 치료 방법과 그 근거 등을 포함할 것)
듣기 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나 인터넷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을 듣기 자료로 활용 • TV에서 방영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듣기 자료로 활용

설화 <거북이와 원숭이>와 한국 설화 <구토설화>를 예로 들어 한국 문화 교재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김형복·이행선, 「몽골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민족문화』 65(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5-21쪽에서는 <팔 없는 여인>과 <손 없는 색시>로 몽골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 32) 읽기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관련되는 새로운 읽기 자료를 개발해야 하므로, 어떤 내용의 읽기 자료를 제시할 것인지만 보이기로 한다.
- 33) 듣기 자료는 기존의 언론 매체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거나, 따로 관련된 듣기 자료를 제작해야 하므로, 어떠한 내용의 듣기 자료가 효과적인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듣기의 경우에는 듣기 대본을 준비해야 하며, 들은 내용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들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요소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몽골인에게 친숙한 몽골 설화를 중심으로, 그에 대응되는 한국 설화를 선정했다. 이때 설화를 기본 자료로 선택한 이유는, 설화가 그 나라의 전통적 삶의 방식, 가치관, 민족성, 민속 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 교육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화는 구조가 간결하고 배경이나 인물 등도 단순하며, 학습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 동기나 흥미 유발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 설화의 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과 한국 설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문화 교육 요소를 추출해 보았다. 이때 이들 문화 교육 요소를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화 교육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본고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첫째, 몽골과 한국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재의 개발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 교육 요소를 실제 문화 교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 교육 요소를 교수·학습할 때 효과적인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실제적인 효용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 교육 요소와 관련된 교재나 교육용 문화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2010, 171-192쪽.
_____,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2011, 12, 90-103쪽.
_____,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2016, 15-168쪽.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국립민속박물관, 2012.
- 데. 체렌소드눔 편저, 이안나 역, 『몽골의 설화』. 문학과 지성사, 2007.
- 박갑수,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2013.
- 박영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2006.
- 박환영, 『몽골의 유목문화와 민속』. 민속원, 2005.
_____, 『몽골의 전통과 민속 보기』. 박이정, 2008.
- 배재원,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해안, 2014.
-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8, 8-73쪽.
- 신주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문학교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8.
- 임경순,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HUFSS BOOKS, 2009.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91, 15-74쪽.
- 장장식,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2005.
- 최운식, 『한국인의 삶과 문화』. 보고서, 2006.
- 카트린 뢰게-알더 저, 이문기 역, 『민담, 그 이론과 해석』. 유로서적, 2009.
- 한미라·전경숙, 『한국인의 생활사』. 일진사, 2011.

2. 논문

-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학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2006, 99-128쪽.
_____,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2010, 39-78쪽.
- 권오경,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2,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2009, 49-72쪽.
- 김동환, 「공유택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008, 297-321쪽.
- 김민주, 「설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은지, 「한국어교사 대상 문화 교육과정 연구: 일반대학원 문화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1997, 317-325쪽.
- 김형복·이행선, 「몽골과 한국 설화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재 구성 방안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1, 189-211쪽.
- _____, 「몽골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민족문화』 6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2, 3-26쪽.
- 김혜진, 「설화를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249-278쪽.
- 백봉자,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6, 1-23쪽.
- 서희정, 「도깨비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6-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85-206쪽.
- 송용실, 「한국어 문화 교육의 실태와 교육 방향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 관점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안미영,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107-130쪽.
- 안주호·투무르바트 톱싱바야르, 「몽골 현지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동악어문학』 68, 동악어문학회, 2016, 253-277쪽.
- 안희은,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오윤선, 「한국문화교육 제재로서의 설화의 선정과 교재화 방향」. 『고전문학과 교육』 3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113-143쪽.
- 윤승준·황인덕, 「한·몽설화의 비교: 爭年說話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22, 비교민속학회, 2002, 233-260쪽.
- 이가원,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문예비평학회, 2014, 379-415쪽.
-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257-271쪽.
- 이행선, 『한국과 몽골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임효례, 「설화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배달말 교육』 32, 배달말교육학회, 2012, 129-158쪽.
- 장장식, 「한국과 몽골 설화의 비교연구: 비교연구의 현황과 몽골설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199-228쪽.
- 정연숙, 「문학텍스트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양상」. 『국어교과교육연구』 21, 국어

- 교과교육학회, 2012, 361-385쪽.
- 정희정,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중국인 초·중급학습자 대상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향록,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199-219쪽.
- 하은하, 「한국어교육을 위한 동아시아 설화 비교 연구: 한국, 베트남, 태국의 <나무꾼과 선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31,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7, 73-116쪽.
- D.OTGONTSETSEG, 「蒙·韓 구비문학에서 말[馬]이 지니는 의미와 상징」. 『Journal of Korean Culture』 1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09, 71-97쪽.

국 문 초 록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속에 담긴 한국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문화 요소를 교수, 학습해야 한다. 특히,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과 농경으로 정착 생활을 한 한국은 문화적 기반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몽골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몽골인의 경우에는 주로 이야기를 통해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몽골 설화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 문화 교육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몽골과 한국의 설화를 선정하고 그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을 다룬 앞선 연구를 검토했다. III에서는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가 대응되는 양상을 여러 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작품을 분류·선정했다. IV에서 화소(話素) 분석을 활용한 설화의 줄거리를 통해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한국 문화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문화 요소를 통해 몽골과 한국의 문화 요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비교·인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8. 6. 3.

심사일 2018. 7. 4.

게재 확정일 2018. 8. 27.

주제어(keyword) 몽골·한국 설화(Mongolian and Korean folktales), 한국 문화 교육(Korean cultural education), 비교·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교육 내용(educational contents), 화소 분석(motif analysis), 한국 문화 교육 요소(Korean culture educational elements), 활동(activities)

Abstracts

A study on the selection of Korean culture educational elements for Mongolian learners: through the comparison and contrast of Mongolian and Korean folktales

Kim, Mun-gi · Lee, Haeng-sun

Because learning a foreign language *per se* is a process of being acquainted with the culture of the country, Korean cultural factors in the Korean language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teaching as well so that L2 Korean learners can use them to express themselves in proper context. Particularly, due to the different cultural bases between Mongolia's nomadic life style of Mongolia and Korea's sedentary life style, it is essential to employ effective educational contents and pedagogic methods for Korean cultural education in order to help the Mongolian-speaking learners of Korean overcome the differences. For Mongolians, it seems effective to use Mongolian tales, considering that their language learning is based on storytelling rather than through books. First, we select Mongolian and Korean folktales which are deemed meaningful for the teaching of Korean culture. Educational values are extra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elements implicated in the tales, which are then selected for educational contents. In Section II, we point out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by reviewing some previous studies which examine Korean cultural education using folktales. In Section III, literary works of Mongolian and Korean folktales are carefully classified and selected based on several criteria such as summary, structure and corresponding theme. In Section IV, useful cultural aspects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are identified from the chosen folktales of both countries, and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shed light on through motif analysis. By engaging in diverse activities which highligh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ultural elements in Mongolian and Korean tales, it is expected that the learners can achieve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Mongolian and Korean cultures and on that basis, improve their communicative confidence.